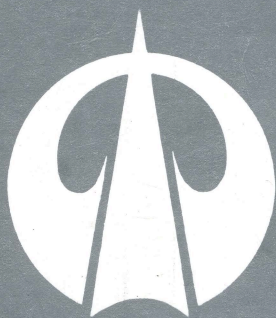


〈제1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출연〉

# 등바루



충청남도

## <민속 놀이>

# 등 바 루

### □ 해 설

「등바루」는 충남 보령군 웅천면 삼시도리 장고도(長古島)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구수제(鬮秀祭)의 일종으로서 해산물 채취경연을 겸한 섬처녀들의 고유한 민속 놀이이다.

이 「등바루」는 해당화가 피는 음력 4월 초순 어촌에서는 사리때 처럼 바쁘지 않은 조금때를 택해서 놀이를 한다.

8월의 한가위가 내륙지방 여성들의 길삼경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도서특유(島嶼特有)의 「등바루」는 섬처녀들의 조개, 굴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경연대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등바루」는 이곳 섬처녀들에게 있어서는 한가위 보다도 더 기다려지고 보다 의의있는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놀이에 옛날에는 경도가 시작된 처녀들만이 참가할 수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15세이상의 처녀로서 결혼전까지는 해마다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등바루」에 참가할 처녀들은 날짜를 정해 전날에는 놀이터로 적합한 곳에 해변의 돌을 모아 외부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출입구가 바다쪽을 향한 몇개의 돌담움막을 쌓는다.

다음날 이른 새벽 참가자들은 해산물 채취에 필요한 도구와 옷, 악기등을 갖고 놀이터에 모여 돌담 움막안에서 옷을 갈아 입고 동트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짜여진 편대로 갈라져 바다에 나가 혼이 굴을 댄다.

일정시간 굴따기가 끝나면 이를 까는 데까지 경쟁을 하며 이러한 작업을 끝낸 다음 어느편이 많은 가를 비교하여 승부(勝負)를 정하고 또한 어느 편이건 많고 깨긋한 정도에 따라 우수한자 수명을 여왕으로 뽑는다.

여왕으로 뽑힌 처녀는 「등바루」의 주관자가 되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먼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며 그날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 때 과거 「등바루」에 참가했던 부인들이 딸 또는 동생들이 먹을 음식을 말들어 갖다 준다. 진편에서는 이진편에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먹으면서 북, 장고등을 치며 노래와 춤을 추고 꽃나비서기등을 하며 즐긴다.

부락의 남자들은 접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참여는 못하고 먼 곳에서 바라보며 총각들은 숨어서 도둑구경을 하다가 발각되어 쫓겨가기도 한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면 부인들이 여기 저기서 등불을 가져다 밝혀주고 함께 놀며 밤에도 자정이 넘도록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뒷전에서 구경하던 남자들은 박수를 쳐 위로해 주며 함께 돌아간다.

섬처녀들은 이날의 추억을 요래동안 간직하고 다음해 「등바루」를 은근히 기다리며 일년동안을 지낸다.

「등바루」는 도서여성의 노동을 권장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해산물 채취의 기술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서로의 우의를 두텁게 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 □ 연희 내용

<장면 : 전날에 쌓은 돌담움막을 2개 만들어 놓고 군데 군데 해당화가 피어 있으며 그 전면에는 굴이 붙어있는 바윗돌이 깔려 있다.>

- ① 섬처녀들이 다채롭게 옷을 입고 두편으로 나뉘어 앞에서 장단을 치며 뒤에서는 해산물 채취도구를 들고 장단에 맞추어 우쭐거리며 놀이터로 들어온다.
- ② 편대별로 움막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벗은 옷은 돌담위에 걸쳐 놓은 다음 해산물 채취도구를 갖고 동트기를 기다리다가 동이 튼다고 웨치면 환성을 울리며 흥겨운 자세로 굴이 붙은 바윗돌이 깔려 있는 바다로 나간다.
- ③ 한편에서 장단을 치고 섬처녀들은 이에 맞추어 서로 노래를 주고 받으면서 영금 영금 기어다니며 신바람이 나게 굴을 댄다.
- ④ 징을 울려 굴마기를 멈추라는 신호가 나면 모두 움막앞으로 모여 어느편이 굴을 많이 맞는가를 비교하여 승부가 정해지면 이긴편에서는 환호성을 울리고 진편에서는 섭섭해 한다.
- ⑤ 또한 개인별로 누가 가장 많고 깨끗이 맞는가를 비교하여 2명의 처녀를 여왕으로 뽑으면 여왕이 된 처녀는 기뻐 날뛰며 나머지는 박수를 쳐서 환영한다.
- ⑥ 굴을 댄 처녀들은 다시 움막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 입고 여왕으로 뽑힌 처녀에게는 여왕 모습의 옷을 입히고 조개껍질로 만든 관을 씌워 주며 여왕은 행사진행의 협의를 한다.
- ⑦ 부인들이 음식을 갖다주면 여왕의 지시에 따라 이긴 편에서는 좌정을 하고 진편에서 음식을 바치면 먼저 여왕, 그리고 이긴편에서 먹으며 진편에도 먹으라고 권해 함께 먹는다.
- ⑧ 이어 장단이 울리고 수명이 일어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모두 따라 일어나 함께 노래 부르며 흥겹게 춤을 추기 시작한다.
- ⑨ 부락남자들은 멀리서 처녀들이 노는 광경을 바라보며 총각들은 살금 살금 움막뒤로 기어 들어와 도둑구경을 하다 처녀들에게 발각되어 도망갔다가 다시금 숨어든다.
- ⑩ 놀이터에서는 차츰 흥이 돋꾸어져 장단은 흥겨운 가락이 울리고 처녀들은 노래부르며 원무를 춘다음 일부는 꽃나비를 서고 나머지는 노래와 춤을 추며 어깨위에 올라탄 처녀들도 이에 맞추어 춤을 춘다.
- ⑪ 해가 지면 부인들이 초롱불을 들고 와서 밝혀주는데 이때 도둑구경을 하던 총각들은 부인들에게 쫓겨가고 꽃나비서기가 끝나면 구경하던 부인들도 함께 어울려 노래와 춤을 추어 최고조의 흥을 돋꾼다.
- ⑫ 놀이가 끝나면 초롱불을 앞세우고 모두 줄지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흥이 가시지 않은듯 우쭐거리며 나가고 남자들은 가까이 요면 박수를 쳐서 위로하며 뒤를 따라 전원 퇴장한다.

## 출 연 자 명 단

- 총기도 : 사단법인 충남민속예술 보존회
- 대 본 : 박 계 홍 (충남대학 교수)
- 안 무 : 이 미 라 (예총 충남지부 부지부장)
- 지 도

무 용 : 양 순 자 (충남여고 교사)  
 노 래 : 남 광 현 ( " )  
 악 대 : 양 도일 박 병호 이 귀원 김 재길

- 기 수
- 노 혜 숙 박 남 순

- 악 대
- 쟁가리 : 임 옥 순 박 현 숙
- 징 : 주 영 진 신 경 자
- 장고 : 박 효 숙 박 미 란
- 북 : 박 병 숙 김 현 란 안 정 숙 최 명 희

- 처 녀
- 정 양 순 김 승 회 김 양 순 박 향 순
- 송 인 찬 김 정 희 김 향 숙 서 옥 석
- 이 정 희 이 명 순 전 정 숙 유 상 숙
- 박 숙 이 선 옥 박 혜 란 송 길 희
- 김 선 옥 방 기 화 박 명 희 김 기 숙
- 이 정 애 백 옥 린 황 군 정 이 북 선
- 조 혜 린 박 명 숙 최 미 자 손 명 희
- 문 명 숙 박 정 애

- 부 인
- 송 용 운 박 금 회 이 제 주 이 정 자
- 한 영 숙 나 화 숙 박 정 자 이 경 숙
- 김 순 복 신 영 애

- 남 자
- 정 미 택 이 정 순 이 윤 섭 최 성 란
- 이 양 주 성 명 옥 이 희 순 정 지 인

(충남여자 고교생)